

2주차

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여성과 가족(1910~30년대)

김 지 민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개화기 조선과 여성

- 개화기 개관
- 문명개화론과 여성
-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「여권통문」
- 서양과의 만남 - 선교사들과의 조우

02. 일제통치의 시작과 3.1운동, 그리고 여성

- 일제강점기의 시작
- 여학교
- 3.1운동과 여학생들의 참여
- 3.1운동과 전도부인

03. 신여성과 여성해방 담론

-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
- 신여성의 등장
- 여성해방 담론과 비판

04. 호주제, 이혼, 그리고 직업부인의 등장

-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
- 이혼제도의 변화
- 직업부인

05. 경계의 여성들

- 조선에 온 일본인 여성
- 재조일본인 여성과 내선결혼
- 미국으로 간 조선인 여성 - 사진신부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3.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.
- 식민지 조선에서 신여성의 등장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.
- 1920~30년대 여성해방 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
- 신여성의 등장
- 여성해방 담론과 비판

3차시

신여성과 여성해방 담론

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

시대적 전환점이 된 3.1운동

-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
- 세계가 식민지 조선 문제를 알게 되는 계기
- 일제가 식민통치 방식을 바꾸는 계기

문화통치의 시작

- 3.1운동에서 ‘평화로운 한국인 시위자’ 대(對)
‘무자비한 통치자 일본’의 모습
-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
- ‘무단통치’에서 ‘문화통치’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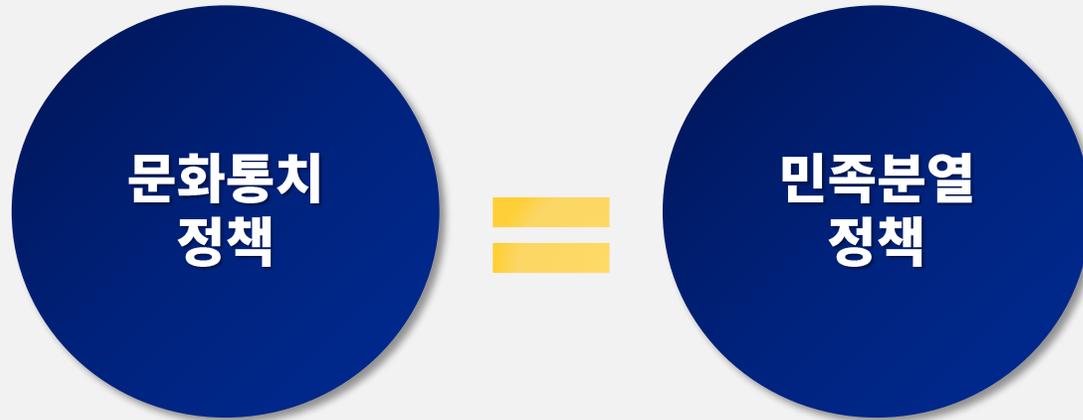
문화통치를 표방하며 조선 총독으로
새로 임명된 사이토 마코토 (1858~1936)

문화통치

- 1910년대 무단통치의 억압을 완화하고
조선인들의 저항 줄이려는 노력
- 노골적인 헌병경찰제 → 보통경찰제
- 교육체계를 일본과 유사하게 바꾸어서 차별을 줄이겠다는 약속

문화통치

- 조선인 유화정책: 언론, 집회, 출판의 자유를 부분적 허용
- 한글신문 출판, 정치, 사회단체 활동 부분적 허용
- 그러나 여전히 제약이 존재



- 조선인 동화의 수단 중 하나로 친일파 육성
- 단체활동 허가하되 '친일단체' 원조
- 부분적인 개량정책
- 민족운동 분열과 친일파 양성의 효과

신여성의 등장

‘신여성’의 등장

- 신여성, 모던걸: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여성
- ‘구여성’과 대비되는 개념
- 서구, 중국, 일본으로부터 여성해방 담론 유입



‘신여성’의 이미지와 편견을 함께 보여주는 만문만화

식민지 조선의 신여성



조선의 대표적 '신여성', 무용가 최승희 (1936년 경)

식민지 조선의 신여성

- 도시에서 교육받고 소비 문화를 선도한 신여성
- ‘구여성’과 다른 새로운 생각과 말, 행동, 외양
- 미디어 속 신여성: 근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존재로 등장

신여성의 생활

- 《신여자》, 《신여성》 등 여성잡지 창간:
여성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
- 단발머리, 뽀족구두, 통치마 등의 외형적 변화
- 봉건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추구

대표적인 신여성들

- 김일엽, 김활란, 나혜석, 박인덕, 유각경, 허영숙 등



나혜석 (1896~1948)

나혜석 (1896~1948)

- 서양화가, 작가
-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을 폭로
- 여성이 교육을 통해 합리적 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
억압적인 관습에 도전할 것을 주장
- 여성해방 사상과 실천을 체득한 여성운동가

“그것은 옛날 말이에요.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,
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,
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벼슬도 할 수 있어요.
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에요.”

나혜석, 〈경희〉, 《여자계》, 1918.3, 102쪽

신여성의 행보

- 교육 받은 신여성의 사회 진출
- 해외 유학, 전문 교육
- 의사, 교사, 기자 등 전문직에 종사

신여성의 사회적 한계

- 조선 남성 및 일본 여성에 비해 낮은 임금
- 여성의 가정생활 유지에 편리한 직업 선택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

신여성의 사회 참여

- 여성단체 조직, 여성의 자립 위한 계몽활동, 농촌여성 계몽, 문맹타파를 위한 움직임
- 문자보급운동(1929), 브나로드 운동(1931)

신여성의 외양

- 긴 머리를 짧게 자른 단발
- 사회적 화제가 된 ‘단발기생 강향란’
-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갈망한 여성들



‘단발’과 ‘남장’으로 전통적 규범을
일탈했던 기생 강향란

여성해방 담론과 비판

1920년대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

- 잡지와 신문에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에 대한 담론
- 남성과 여성 지식인 간의 관점 차이

문명개화론과 여성

근대적 여성상에 대한 논의

- 식민지라는 민족의 위기에서
조선의 근대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
- 민족적 과제 달성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
근대적 여성상 - 현모양처
- 개화기 이래 계속되었고 총독부의 제도교육 통해서도 전파

일제강점기 현모양처론

- 종래 가족제도에서 여성은 사람 된 요소를 결여했으므로,
여성이 전통과 단절해야 여성의 가치가 회복된다
- 여성은 근대적 가치를 지니고 민족발전에 기여해야 하고,
그 구체적 모습이 현모양처
 - 여성교육을 통해 소양을 길러 가정에서 현모양처의 역할에 충실해야

현모양처론은 전근대 유교적 여성관과 어떻게 다른가?

- 조선후기 유교관
 - 남녀 간, 고부 간 상하 관계
- 현모양처론
 - 부부 간의 동등한 관계 주장, 자유연애도 수용
- 그러나 남성을 자녀교육 주체에서 배제시키고
가정교육을 전적으로 여성(어머니)의 몫으로

일본의
양처현모

VS

조선의
현모양처



- 근대 일본: 여성이 의무교육의 대상
 - 폭넓은 교육을 통해 양처현모가 전근대 계급에 따라 구별된 여성상을 점차 대체

일본의
양처현모

VS

조선의
현모양처

- 식민지 조선: 소수의 여성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음
 - 현모양처 개념은 교육 혜택을 받은 중산층 여성에 한정
도시 하층계급, 공장 및 농촌 여성 등과 구별되는 지표가 됨

신여성의 사랑: 자유연애

-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적으로 신여성, 여성해방론, 자유연애론 유행
- 스웨덴 여성운동가 엘렌 케이(Ellen K. S. Key)의 연애론:
“어떤 결혼이든지 거기 연애가 있으면 그것이 도덕이다.
어떤 법률상 수속을 거친 결혼이라도 거기 연애가 없으면 그것은 부도덕”

신여성과 현모양처

- 신여성이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으로 이상적인 배우자와 함께 부부 중심의 소가족을 이루기
어려운 현실
- 기혼 지식인 남성과 신여성의 연애로 ‘첩’이 된 여성들
- 이상과 현실의 간극: 현모양처의 대책점에 서게 된 신여성

‘제2부인’ 문제

- 신여성의 동거와 첩살이, 구여성의 이혼
- 자유연애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
-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서구적 모더니티의 충돌



신여성과 구여성을 대비시킨
《동아일보》의 삽화 ‘신구대비’
(1924. 6. 11)

신여성 비판 담론

- 신여성의 새로운 외양, 연애, 결혼이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남성 지식인들의 비판



나혜석, "저것이 무엇인고"

신여성 비판 담론

- 자유연애와 외양에만 관심이 있을 뿐
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
- “신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하루에 설렁탕
두 그릇을 먹는다”(《별건곤》 1929년 12월)

남성지식인들의 비판

- ‘여성해방은 정당하지만 아직 조선에는 시기상조’
- ‘해방을 논하려면 여성이 능력부터 갖추어야 한다’
- ‘계급해방이 되면 여성해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’

남성지식인들의 비판

- 여성을 타자화
- 서구적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
- 현모양처 모델을 전형화하는 시도로 이어짐

1930년대

- 모더니티 비판 + 전통에 대한 향수 + 신여성에 대한 혐오
 - 현모양처의 이상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변화

마무리

- 이번 차시에는
 - 1920년대 이래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등장과 여성에 관련된 담론
 -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험
- 다음 차시에는
 - 1920년대~30년대 여성들이 겪은 변화의 양상

[출처01] Wikimedia Commons

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Makoto_Saito_2.jpg

[출처02] “학생만화”, 《별건곤》 1927년 7월호

[출처03] Wikimedia Commons

[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Choi_Seung-hee_at_the_Chosen_Hotel_\(current_Westin_Chosun_Hotel\)_in_Seoul,_Korea,_1940.jpg](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Choi_Seung-hee_at_the_Chosen_Hotel_(current_Westin_Chosun_Hotel)_in_Seoul,_Korea,_1940.jpg)

[출처04] Wikimedia Commons

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%EB%82%98%ED%98%9C%EC%84%9D-Na_Hye-seok.jpg

[출처05] 《동아일보》 1926년 10월 8일자 6면

[출처06] 《동아일보》 1924년 6월 11일자 1면

<https://www.donga.com/news/Culture/article/all/20091119/24208855/2>

[출처07] 나혜석, ”저것이 무엇인고,” 《신여자》, 1920년 4월호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